

스마트 기술과 인구변동

*Smart Technology and Population
Dynamics*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IUSSP 부산총회 국가조직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제27차 세계인구총회에서 스마트 기술에 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다. 얼핏 생각하면 스마트 기술과 인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스마트 기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전의 어떠한 과학기술보다도 인구변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원고는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스마트 기술이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고찰하고, 세계인구총회에서 왜 스마트 기술에 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배경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메가트렌드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급속한 인구변동과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정부 조직에 반영하기도 한 정보통신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들 것이다. 먼저 인구변동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층의 사망률 감소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가구 구조도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구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가구원 수는 줄고 가구의 수는 증가하는 양상은 멀리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가구 혹은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10년 20년 뒤의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메가트렌드임에 틀림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한국전쟁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의 스마트 기기 시장을 이끌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수준의 높은 정보통신기술력은 오늘날 물론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단순히 정보통신을 위한 단말기의 보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일, 여가,

생활, 타인들과의 교류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삶의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어 일상의 생활양식과 문화도 함께 변화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구변동과 함께 미래 한국사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대표적인 메가트렌드임에 틀림없다.

제27차 세계인구총회를 준비하는 국가조직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메가트렌드에 주목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문제에 관한 특별 세션들을 구성하면서 스마트 기술과 인구변동 간의 관계를 고찰해보는 기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인구변동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의 정책적 대응을 야기하는데, 그 대응의 하나로서 스마트 기술을 고려해 보자는 취지로 “Emergence of ‘Smart Technology’ and Its Contributions for Demographic Processes in both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라는 특별 세션을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회 3일째에 국가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플래너리 세션에서도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구문제에 대한 기조강연 이외에도 전 세계 스마트 기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참여하여 실제로 기술력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으며, 그것이 개인은 물론 인구집단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 기술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인구변동과 그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함으로써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스마트 기술이란?

얼마전만해도 매우 생소했던 스마트 기술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스마트 기술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진 바는 없다. 필자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실체를 가진 기술이나 공학적인 시스템을 부르기 위해 학문적으로 발전된 용어이기보다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같이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기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용도로 주로 스마트 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스마트라는 용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스스로 오작동을 방지하는 기능(Self-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에 붙여지기도 하였고,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탑재된 가전기기에 스마트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스마트폰이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의 명확한 개념이 규정된 바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스마트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전화기이건 가전제품이건 기기 자체가, 비록 인간의 지능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어도, 스스로 정보를 수집, 연산, 분석, 소통

하는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기기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이다. 우리나라에서만 3천만 대 이상이 보급될 정도로 스마트폰은 대중 일상의 일부가 되어 버렸는데, 이러한 추세는 비단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수백불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수십불 정도의 저가의 스마트폰이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한 보급은 아니어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각종 기기들이 시장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에 확산되고 있는데, 주로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복사기 등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앞서 설명한 스마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이 용이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가전제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즉 스마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원공급이 가능하다면, 그 스마트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예컨대 데이터의 축적만이 가능한지, 축적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까지 가능한지, 혹은 축적된 정보를 스스로 연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사물들에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운전자와 주변정보를 수

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전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자동차나 스마트자전거 등은 이미 상용화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전송의 기능만을 가지지만 이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게 만드는 다소 낮은 수준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운동화, 개인 의료기기, 의류 등도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3. 스마트 기술과 인구문제

21세기의 전지구가 목격하고 있는 인구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선진국들과 서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저출산 현상과 빠른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출생 시 성비불균형 문제를,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빈곤과 AIDS/HIV 확산 문제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대규모의 인구이동에 따른 각종 계층 및 인종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인구문제들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들과 저개발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아직 인구학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구학과 매우 인접한 학문분야인 보건학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실제 보건 제도와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에 접목되고 응용된 학문적이고 경험적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제27차 세계인구총회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조직위원회가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과 인구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장을 특별 세션을 통해 마련한 배경이다.

인구학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인식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서 역학변천(epidemiologic transition)의 원인으로 위생상태 개선, 식량 증산 및 저장, 의료 기술, 교통 발달 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변화와 발전들이 중요성하게 다루어져 왔다. 정보통신기술 혹은 스마트 기술의 경우 인구학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 온 이유는 아마도 그 기술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이 하나이고 역학변천을 이끌었던 과학기술들에 비해 사망과 건강은 물론 다른 인구학적 요소들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른 하나일 것이다. 즉 스마트폰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들이 인간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연장해 줄 수 없다. 이들이 출산율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없다.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혹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촉발하거나 막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구학에서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력의 놀랄만한 진보와 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 인구이동 사망 등의 인구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인류의 일상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고 삶의 질과 형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이 기술이 인구요소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나게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인구요소들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커지게 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동시다발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역학변천에 큰 영향을 주었던 과학기술들은 선진국들로 부터 시작하여 점차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들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물론 예외도 존재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학 기술력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이 점이 인구변천이론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모두에서 실제 적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산된 수준에서 지역 간 차이가 매우 적다. 물론 높은 가격의 정보통신기기인 스마트폰의 경우 아직은 선진국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 왔지만 휴대전화 전체를 놓고 보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들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프리카 내부에서 저가의 스마트폰 개발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국가들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곧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특성으로 인해 이전의 어떠한 과학 기술력보다도 정보통신기술이 인구변동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이 사용자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근접하게 존재하는 ‘생활밀착형’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

트 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 피쳐폰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보통신 기기 역시 사용자들에게 이미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자들의 아침 일과의 시작부터 밤에 잠 자리에 들기까지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분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 되어 버렸다. 스마트폰이나 피쳐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들 기기들이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인구변동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정보통신기기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기능과 상호 연계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더욱 더 그러한데, 인구변전에 영향을 주어 온 과학기술들의 경우 특정 기기에는 특정한 기능들이 접목되었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는 기기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되는 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정보통신 기기는 아니어도 이 기기와 연동될 수만 있다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기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데,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관리 앱세서리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무한한 기능과 상호 연계성은 실제로 이전에는 전문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들에 대한 접근성을 일반인들에게도 열어주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 위치하거나 이동하고 있는 지역의 지리적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과 수년 전에만 해도 인공위성과 연동되는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스마

트폰을 사용하여 누구나 본인의 지리적 좌표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으로 인해 개인들의 삶의 질이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출생, 이동, 건강관리 및 사망 등 인구요소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넷째는 정보통신기기가 지니고 있는 다방향의 정보전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전 인구변전에 영향을 준 과학기술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경험된 후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로 이전되는 단방향의 전달 경로를 견지하여 왔다. 즉 기기이건 지식이건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기기는 기본적으로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선진국이, 기기 자체를 제작하는 일은 개발도상국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그 기기를 통해 생산되는 지식은 단방향이 아닌 다방향에서 동시에 전달될 수 있게 하였다. 다방향의 정보전달 가능성은 지식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흐르도록 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생성되고 전달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에서도 정보와 지식이 창출되고 그것이 다른 지역과 국가들로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낮은 에너지 소비 특성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들은 이전의 다른 어떠한 과학기술 기기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 예컨대 피쳐폰은 물

론이고 스마트폰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비해 매우 낮은 전력을 소비한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선을 통해 연결되는 집 전화와 같은 통신 기기들에 비해 모바일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은 물론 에너지 소비가 훨씬 적다. 바로 낮은 에너지 소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은 지금까지의 발전 및 확산 속도보다도 빠르게 전 세계에 보급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전력 생산 및 이동 설비가 매우 열악한 저개발국가에서의 보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인데, 위에서 적시한 정보와 지식의 다방향 전달 가능성과 함께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스마트 기술을 응용한 인구문제 해결의 예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닌 스마트 기술이 인구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예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가 최근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몇 가지만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스마트센서스의 가능성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센서스 실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조사원 방문식의 센서스는 그 비용과 조사원 안전 문제, 응답거절 등의 문제로 인해 다가오는 2015년 센서스부터 등록센서스로 대체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등록센서스는 기

본적으로 주민등록자료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 인구를 파악하는 센서스를 완전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가능성은 젊은 인구에서 더욱 크다. 여기서 등록센서스의 보완재로서 스마트센서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장소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거주지를 직접 파악하여 거주지의 좌표를 전송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센서스에서 반드시 조사되는 질문 문항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함께 전송하게 한다면 등록센서스가 지닌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센서스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파악하는 방식의 스마트센서스는 인구가 넓은 지역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는 국가들에서는 기존 센서스의 매우 유용한 대체재로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드시 스마트 기술은 아니어도 정보통신기술도 인구문제 해결에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도 있다. 기본적으로 센서스는 정주인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많은 도시들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도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정주인구 못지 않게 주간 유동인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최근 성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휴대전화 기지국에 접속되는 휴대전화 무선 수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동인구 수를 추정해 내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Kostakos et al. 2013)¹⁾. 연구에 의하면 한 기지

국에 실시간으로 접속되는 휴대전화 무선회선을 구하고, 기지국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내삽하면 도시의 실시간 휴대전화 수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센서스를 통한 유동인구 파악은 설문조사에 의존하였다면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동인구 추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의 또 다른 가능성은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우혜경, 조영태 2013)²⁾. 건강관리는 인구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앞으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건강관리는 지금과 같이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질병 발생시 의료서비스를 찾아가는 형식에서 벗어나 본인 신체의 생리학적 요소들을 끊임없이 인식, 기록, 분석하는 스마트기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아직 높지 않은 저개발국가에서는 기존의 피쳐폰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혹은 가족계획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폰에 내장된 보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진에게 연락을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그 자료는 전자의무기록과 같은 형태로 보관되어 추후에 의료서비스 제공

에 사용되도록 만드는 형태의 mHealth가 확산되고 있다(Herasevich, Litell, and Pickering 2012)³⁾. 이처럼 스마트폰이건 기존의 피쳐폰이건 정보통신기술의 확대는 선진국은 물론 저개발국가에서도 건강관리 시스템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은 앞으로 인구변동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이와 같은 특성들은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인구변동에 영향을 준 과학기술의 특성들과는 매우 차별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변동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그 양과 범위 그리고 질에서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인구변동을 생산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인구학에서 치열한 연구가 필요한 부문이다. 하지만 이미 본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특히 스마트 기술이 출산, 인구이동, 건강, 사망, 그리고 인구통계에 이르는 다양한 인구요소에 최

1) Kostakos V, Juntunen T, Goncalves J, Hosio S, Ojala T(2013). Where Am I? Location Archetype Keyword Extraction from Urban Mobility Patterns. PLoS ONE 8(5): e63980. doi:10.1371/journal.pone.0063980
 2) 우혜경, 조영태(2013). 건강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스마트 헬스': 쟁점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월호, pp.70~81.
 3) Herasevich V, Litell J, and Pickering B(2012).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mHealth Anytime, Anywhere. Biomedical Instrumentation & Technology: Mobile Health, Vol. 46, No. s2, pp.45~48.

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계나 정부 등 공적영역에서 접근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정보통신기술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업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문제를 오히려 더욱 키우거나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제27차 세계인구총

회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보통신기술 혹은 스마트 기술이 인구변동에 영향을 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인구총회에서 소개될 특별세션이 정보통신기술과 인구변동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보건복지**